

제 54회 신입생 워크샵 연출 인수인계서

울전 연출 장선웅

1. 준비 전 단계

- 공연 계획

작년과 똑같이 학교에서 극장을 빌려주지 않아서 외부 극장을 대관하였습니다. (극장에 관련된 이야기는 뒤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연에 쓰인 작품은 작년 신입생 워크샵과 같은 '올모스트 메인'으로 옴니버스 형식의 극입니다. 원래는 작년과 극이 겹치지 않도록 하려고 했으나, 캐스트 지원자가 생각보다 많고 성비가 맞지 않아 사정상 겹치게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의 극회 내의 '올모스트 메인' 공연과 연출진의 대다수가 '올모스트 메인'을 올려봤기 때문에 배우들에게 디렉팅을 할 때 옛날 올모스트 메인 디렉팅이 생각이 나서 잊어버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입생 워크샵에서는 가급적 '올모스트 메인'을 올리는 것을 지양하면 좋겠습니다. 공연 진행 방식은 명륜-울전 통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캐스트들의 연습은 캠퍼스 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연출은 명륜과 울전 각각 이재홍(63기)와 장선웅(63기)가 맡았고, 조연출은 정윤주(63기)와 장연희(63기)가 맡아서 진행하였습니다. 캐스트는 각 캠퍼스에서 충원하는 대신, 스텝은 양 캠퍼스 공동으로 구성해 진행했습니다.

4/24부터 공연 준비를 시작해서 5/27에 공연을 올려야 되는 굉장히 촉박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공연진 모집이나 연습 과정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공연진 모집은 4/13에 시행하였고, 공연 시작 전 팀장을 부탁할 분들을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 :

일단 신입생 워크샵 특성상 최대한 캐스트 지원자 전원을 수용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이지만,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신입생들은 받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스텝들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합니다. 미리 캐스트 지원자들을 파악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출진들은 공연 시작 전에 최대한 많은 계획들을 미리 미리 짜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저한 대본분석은 필수이고, 주별 계획, 일별 계획도 구체

적으로 짜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연 준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수정 및 피드백을 거쳐 보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캐스트 트레이닝을 준비할 때에는 무슨 목적으로 트레이닝을 진행하는가와 캐스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고 싶은가에 초점을 두어 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법은 밑에 자세히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기 중에 연습을 하기 때문에 일주일 중 하루를 캐스트 연습 휴무일로 정해놓고 연습을 하였습니다. 이러면 문제점이 생기는데, 만약 공연 연습 주중 공휴일이 있거나, 축제와 같은 큰 행사가 있을 경우 연습을 진행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행사가 있거나 공휴일이 있는 주는 무조건 보충연습을 잡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공연 준비를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촉박합니다.

[1주차] : 아이스 브레이킹, 기초 트레이닝

[2주차] : 기초 트레이닝, 배역 오디션, 대본 분석

[3주차] : 대본 분석, 장면 연습, 보충 연습

[4주차] : 장면 연습, 시연회, 철야, 동선 픽스, 보충 연습

[5주차] : 런쓰루, 장면 연습, 무대 리허설, 공연

2. 준비 중

1) 1주차

[아이스 브레이킹 & 기초 트레이닝]

(아이스 브레이킹)

신입생 워크샵 특성상, 한 번도 캐스트 경험이 없는 인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연극과 동방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암전 마피아와 컵차기, 틱택톡, 생존게임 같은 워밍업 게임들을 진행하며 동방과 친해질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 연극에 관련된 정보와 지식을 알려주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워밍업)

- 암전 마피아 (주의할 점 : 오래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너무 오래할 경우 여기에 힘을 다 뺄 수도 있습니다.)
- 컵차기 (주의할 점 : 목표한 개수를 이루고 다른 트레이닝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캐스트들의 사기와 힘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수단인 것 같습니다. 다만 시간이 너무 지체될 경우 패스하는 것이 좋습니다.)
- 틱택톡 (주의할 점 :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라 빠르게 하기는 좋습니다. 다만 신체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 생존게임 (참고할 점 : 생존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외우는 데에 특화된 게임인 만큼 공연 준비 1주차나 배역이 정해지고 난 뒤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존게임은 신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하는 게임이므로 신체적으로 도움도 많이 되는 게임입니다.)
- 곰게임 (솔직히 곰게임은 에너지를 더 다운 시킬 수도 있는 게임이라, 자주 하는 것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기초 트레이닝 : 후대에 연출님들께 바칩니다. 정말 열심히 썼으니 잘 읽어주십시오.)

- **중립 자세**

- **이완(운동, 스트레칭/ 명상)**

이완에 대해서 : 이완은 정신적 이완과 신체적 이완이 존재합니다. 이완된 배우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나 긴장된 배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만큼 이완은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완된 상태에서 연기연습을 시작할 것입니다. 신체적 이완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는 연기 시작 시에 운동과 스트레칭을 합니다. 정신적 이완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연기 시작 시에 명상을 합니다. 명상을 할 때에는 눈을 뜬 상태에서 주변 여러 사물을 관찰합니다. 이때 한 사물을 오랫동안 관찰해도 좋고 여러 사물을 잠깐 잠깐 관찰해도 좋습니다. 관찰하면서 평소 보지 못한 사물의 특성이나 모양, 변화를 관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은 최소 5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물과 주변을 관찰함으로써 내가 긴장했다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호흡, 발성**

사실 상 공연 준비 기간 내에 호흡과 발성을 잡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지니고 있었던 발성법을 버리고 새로운 발성법을 가

지려면 2~3년 정도 꾸준한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에 있어서 음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트레이닝 법을 밑에 적어 놓겠습니다. 좋은 발성은 좋은 호흡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 하품하는 방법 알기 : 하품은 이완된 신체에서 비롯되며 가장 자연스럽게 풍부한 양의 공기를 흡입하는 이상적 호흡법입니다. 하품을 할 때 가슴이 아닌 배로부터 숨을 쉽니다. 배에서 나오는 호흡이 바로 배우의 기본 호흡입니다. 얇은 흉식 호흡이 아닌 깊은 복식 호흡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 복식 호흡 하기 : 복근을 이용하여 심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신체 트레이닝을 할 때 복근을 키워주는 운동을 같이 해주면 좋습니다. 하품을 하며 두 팔을 뻗고 다시 숨을 쉽니다. 무릎을 올리고 등과 발을 바닥에 댄 채 눕습니다. 숨을 쉬면서 배의 움직임을 최대한 주시하고 가슴은 최대한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 후 일어나서 팔을 자유롭게 흔들고 들이쉬는 공기의 맛을 음미(?)하며 자유롭게 걸어 다닙니다.
3. 소리 내기 : 위 복식 호흡 법이 익숙해졌다면 소리를 내보아야 합니다. ‘아’라는 소리를 내볼 것입니다. 1.아하하하하하하 , 2.파파파파파파파, 3. 아~~~~~(이 소리를 낼 때는 음계를 하나씩 내리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 방법대로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소리가 익숙해졌다면 걸어 다니면서 위와 같은 소리를 내되, 매 호흡의 끝으로 가면서 소리를 점점 더 크게 내는 것을 반복합니다.
4. 공명 알기 : 공명은 성대에서 나는 소리의 울림입니다. 한 마디로 공명이 소리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공명을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첫째, 이완(위에서 설명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성법에서 이완이란, 열린 목구멍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를 등뼈 꼭대기에서 ‘부유하듯’ 돌리는 것은 목을 이완시키고 목구멍을 여는 기본이 되겠습니다.

둘째,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게 중심을 가운데 둔 채 척추를 자연스럽게 위쪽으로 늘리고, 머리가 등뼈 꼭대기에서 자연스럽게 ‘부유하도록’(이 뜻은 머리에 힘이 안 들어가고 등뼈 위에서 편안하게 놓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하면서, 편안한 중립자세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다. 기본적으로 ‘이완’이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말하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심화 부분인데, 간단히 요약하자면 모음들의 소리를 낼 때 모음들의 위치, 즉 모음들이 형성이 되는 입 안에서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은 모음들의 위치 변화를

통해 공명을 바꾸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발성법의 추가적인 트레이닝을 더 알고 싶으시면, 01038343457 '63기 장선웅'에게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몸 열기/닫기, 사진 찍기

기본적으로 배우들은 공연하는 무대 내에서는 몸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예외도 존재합니다. 일단 무대에서 몸을 열고 있지 않으면, 상당히 답답함을 초래합니다. 대사도 관객석으로 직선으로 뻗어나가지 않고, 입 모양, 얼굴이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몸을 연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배우들한테 가장 많이 이야기 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몸을 제대로 여는 것입니다. 몸을 제대로 열기 위해서는 일단 발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석 쪽으로 있는 발이 뒤쪽 발보다 앞에 있게 되면 아무리 상체를 비틀어도 몸을 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객석 쪽 발을 뒤쪽 발보다 앞에 두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상체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하체를 위와 같이 잡았다면, 상체도 최대한 열어 주는게 중요합니다.

몸을 열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물론 존재합니다. 연출적으로 몸을 닫고 있을 때 뜻 전달과 대사 전달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을 때, 의도적으로 답답함을 연출하고 싶을 때, 숨기는 것이 있는 연기를 할 때, 여는 것보다 닫는 게 더 나을 때, 동선상 몸을 닫는 것이 더 나을 때 몸을 닫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몸 여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합니다.

사진찍기는 몸을 여는 것을 알게 해주는 기본적인 트레이닝입니다. 특정한 상황이나 장소를 첫 번째 사람에게 정해주면, 첫 번째 사람이 무대 위에 가서 몸을 연 채로 그 상황이나 장소에서 할 법한 포즈를 취해주면, 지켜보고 있던 배우들이 한 명씩 어떤 상황, 장소인지 유추를 하여 무대 위에 올라가 몸을 연 채로 그 상황이나 장소에서 할 법한 다른 포즈를 취합니다. 전원 다 올라가게 되면 사진을 찍고, 맨 마지막 배우부터 상황이나 장소를 맞추게 해서 전원에게 다 물어보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창의력과 순발력도 같이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 걷기, 뛰기

속도를 조절해서 진행하는 걷기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 트레이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사람들은 본인이 어떤 자세로, 어떤 빠르기로, 어떻게, 무슨 생각을 하며 걷는 지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극이라는 특성상 동작 하나하나에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걷

는 것에 대한 깊은 고찰이 중요합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어느 빠르기가 배우 자신에게 제일 편한지, 속도에 따라 무슨 목적으로 걸을지, 보폭은 어느정도 되는지, 시선은 어디를 보고 걷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평소 하지 못했던 생각들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등장과 퇴장

등장과 퇴장은 반복적으로 연습할 만큼 아주 중요하지는 않지만, 한 번 잡을 때 확실하게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등장과 퇴장에서 잡아야 할 것은 바로 '상태'입니다. 등장 전에 자신이 맡은 배역으로서 이미 상태를 유지한 채로 들어와야 하며, 이때 그 배역이 등장하는 상황에서의 발걸음, 자세, 표정을 유지하며 들어와야 합니다. 퇴장도 마찬가지로 완전히 나가기 전까지는 상태를 반드시 유지하여야 합니다.

- GOTE(중요)

제가 생각할 때 연극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GOTE를 위한 트레이닝 방법이 수도 없이 많고, 저도 그 중 일부분을 채택을 하여 이번 워크숍 트레이닝을 진행하였습니다. GOTE는 Goal(목표), Other(다른 사람), Tactics(전술), Expectation(기대)입니다. 개념에 대해서는 간단히 요약해보겠습니다.

목표는 등장인물의 주요한 추구 대상이며, 배우는 1순위로 목표를 추구하는 등장인물로서 무대 위에 있는 모든 사물을 봐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 이 단어는 승리, 목적, 욕구, 의향으로 불립니다. 배우는 우선 등장인물의 목표를 아주 강렬하게 추구함으로써 무대 위의 등장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 목표는 매우 구체적이고 개방적이어야만 합니다.

배우들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목표(G)를 추구하게 됩니다. 연기를 할 때는 언제든지 다른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어떠한 목표도 단순히 혼자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극중에서의 모든 성취는 대인 관계의 갈등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없으면 좋은 연극이 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다른 사람은 목표 성취를 어렵게 만드는 존재이자 주요한 장애물(O)이기도 합니다.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연기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무대 위에서 장애물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당신을 진땀 나게 만들어야 합니다.

목표와 다른 사람을 고려하여, 배우들은 연습을 하는 동안 밑의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무엇이 나의 목표인가?

2. 다른 사람들은 나의 목표 성취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 2-1. 그들은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는가?
- 2-2. 그들은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는가?
- 2-3. 그들은 어떻게 나의 장애물이 되는가?
3. 나는 어떻게 그들의 도움을 요청, 유도, 촉구할 수 있는가?
4. 나는 어떻게 그들로 인한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가?
5. 나의 전술은 무엇인가?

전술은 목표를 성취하려는 등장인물의 수단이면서, 연기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전술과 이를 통한 목표 성취 노력은 배우의 연기를 '사실적으로' 만들어서 등장인물과 배우를 분간하기 힘들게 만들어 줍니다. 사실 전술은 대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인생의 경험을 통해 나오기 때문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전술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술은 위협 전술과 유도 전술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위협 전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네 삶을 비참하게 만들 거야”라고 말하는 것이고, 유도 전술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넌 더 행복해질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를 추구할 때 유연하게 의도적으로 전술을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전술적 다양성은 연기를 강하고, 매력적이고, 극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배우는 전술적인 범주를 확장하고 개발하는게 매우 중요합니다.

기대는 목표를 위한 극적인 추구에 성격, 활력을 제공합니다. 배우들은 목표를 그저 바랄뿐만 아니라, 갈구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궁극적 목표 달성에 대해 열광하고 절실하고 갈망하는 등장인물이어야 합니다. 지신이 결국에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합니다. **자기 확신**은 꼭 가져가야합니다.

[내용 없는 장면 연기 트레이닝]

A : 안녕!

B : 안녕

A : 별일 없지?

B : 응

A : 너 지금 몇 신 줄 아니?

B : 아니, 잘 모르겠는데

A : 시계 없어?

B : 없어.

A : 그래?

B : 그래서 뭐?
 A : 어젯밤에 뭐 했니?
 B : 무슨 말이야?
 A : 어젯밤에 뭐했냐고?
 B : 아무것도
 A : 아무것도?
 B :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A : 물어봐서 미안해
 B : 괜찮아

앞에 주어진 대본을 10분간 배우들에게 숙지하도록 합니다. 이때 대본을 외우게 시키되, 감정, 억양을 다 뺀 상태로 외우게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상황이 들어오고, 추가적인 강화장치가 들어왔을 때 다채롭게 변화가 가능합니다. 일단 앞선 대본에 여러 가지 상황을 추가해서 배우 두 명씩 짝지어서 시켜보는 것입니다.

<추가할 상황>

1. A는 아빠 or 엄마, B는 십대 자녀/ 아침식사 상황 B : 시리얼을 먹는 중, A : 들어온다
2. A와 B는 신혼 부부 / 지난 밤 부부싸움이 존재했고, 밤에 B는 아파트를 뛰쳐나갔다. 다음날 A가 설거지를 하는 중에 B가 들어온다.
3. A와 B : 서로 좋아하는 친구, 교내식당에서 둘이 만나게 되고 A는 B 옆에 앉는다.
4. A와 B는 형제이다. B는 자살시도를 한 적이 있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다. 최근 퇴원. B는 어젯밤에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A는 버스 정류장에서 B 발견.

앞선 상황을 하나하나 대본에 대입해보면, 상황에 따라 대본이 굉장히 다르게 읽히고, 배우들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레이닝 이름이 “내용 없는 장면 연기 트레이닝” 인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양한 강화 장치를 써봐서 다시 상황을 부여하여 배우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강화 장치>

1. 연기 상대가 칼을 가지고 있다.
2. 당신의 배가 아파온다.

3. 현재 있는 장소에서 지독한 냄새가 난다.

4. 상대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아챈다.

5. 상대는 다소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다.

(장애물이 행동을 억누를 만큼 거대하면 기대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다소”를 사용함.)

6. 매우 추운 상황이다.

7. 크게 말하면 울 것 같다.

<장소와 행동 바꾸기>

1. 조깅을 한다.

2. 함께 상을 차리자

3. 해변에 눕자

4. 팔씨름을 하며

5. 음악에 맞춰 춤을 추다.

6. 등 마사지를 해주며

-> 이 활동을 진행하는 목표와 의의 : 내용 없는 장면은 사전 계획, 리허설이 없기 때문에 신선하고 즉흥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목표, 전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 배우들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개인적인 상호작용은 기본적 목표 추구 + 장애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목표가 충돌하지 않으면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 상상하며 걷기

상상하며 걷기는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걸어보면서 상상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배우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상상력을 볼 수 있습니다.

-캐스트들: 몰입도,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지, 어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며 지내왔는지 생각, 감각에 집중합니다.

-연출들: 캐스트들 몰입력, 표현력, 상상력 관찰합니다.

캐스트들이 편안한 산책로를 걷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편안하게 걷는다.

연출이 특정 상황을 지시합니다.

캐스트들은 특정 상황을 상상하며 동작과 표정, 속도, 발걸음을 달리해 공간을 걷습니다.

연출이 얘기하면, 다시 산책로를 걷고 있는 상상으로 돌아옵니다.

새로운 상황을 제시하고 캐스트들은 새로운 상상을 하면서 걷습니다.

-중간 중간 연출은 더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도록 인물과 공기 등을 그려보라

고 제시합니다.

<상황 예시>

뜨거운 사막, 추운 북극, 고백하러 가는 길, 실연 당해서 돌아오는 길, 고된 업무를 끝내고 집에 가는 길 + 좋아하는 음식을 가는 길에 사서 들고 가게 됐을 때의 변화, 만취 상태

- 관찰 게임

*상황 깨지 않는 것 얘기하기

연기 중간에 웃거나, 몰입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상황을 깬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몰입하지 못한 나에게만 피해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몰입하고 있던 상대배우의 몰입까지 깨는 행동이므로 상당히 실례인 행위입니다. 그러니 몰입이 깨지더라도 스스로 다시 집중하려 노력하고 티내지 않도록 합니다.

캐스트들의 몰입도, 관찰력 파악, 캐스트들의 집중력 키우기, 상황 깨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2명씩 마주 보고 앉아 서로의 움직임을 관찰합니다.

상대방을 관찰한 내용을 입 밖으로 말한다. “너 지금 00하고 있어.”

상대방의 관찰을 들으면 “맞아. 나는 00하고 있어.” 하며 자신의 행동을 인정한다. 그리고 바로 상대방을 관찰한 내용을 입밖으로 말합니다.

계속해서 관찰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내용을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나갑니다. 자신이 관찰당한 부분과 연관지어서 상대방을 관찰합니다.

- 거울 되기

캐스트들의 집중력 순발력 표현 능력 몰입도 관찰력 향상을 위해 진행합니다. 연출들은 이 트레이닝을 하면서 캐스트들이 어떤 습관을 가지고 행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활동 범위도 체크합니다. 두 명이 나와 서로를 마주봅니다. 한 명을 정해서 주도적으로 움직입니다.

나머지 한 명은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모든 행동, 표정을 따라합니다.

속도까지 맞춰 따라할 수 있도록 집중한다. 주도자는 최대한 다양한 몸짓을 해보려 노력합니다. 역할을 바꾸어 진행해봅니다.

- 얼음땡 상황극

캐스트들이 몸여는 것을 최대한 신경쓰면서 하도록 돕습니다.

캐스트들의 순발력과 상상력 향상을 위해 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안 들어가면 상황으로 밀어야 합니다.

얼음땡 상황극은 연출이 상황극을 시작합니다.

관객석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얼음”을 외치면 상황극을 멈추게 됩니다.

“얼음”을 외친 사람이 들어가서 한 명을 내보내고 그 사람의 포즈를 취한 상태에서 땡을 합니다. 멈춘 자세에서 3의 사람은 전에 했던 상황극과는 다른 상황의 상황극을 시작합니다. 위의 과정을 반복합니다.

- 목적 상황극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대사와 장면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상황극을 진행하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앞으로 대본을 읽을 때는 캐릭터의 목적에 집중해보도록 합니다.

캐스트들은 순발력, 목적을 유지 하는 법, 상대 배우와 호흡하기, 대사와 장면의 목적 인지,

연출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전술을 얼마나 다양하게 쓰는가?), 감정 표현 능력, 캐스트 들의 습관, 집중력, 몰입도, 상태를 깨지 않는 정도를 확인합니다.

목적1(물건을 가져온다, 지킨다)

목적2(나간다, 같이 있는다)

목적3(앉는다, 세운다)

캐스트들에게 목적을 하나씩 지정해줍니다.

둘은 무대로 나와서 각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상황은 어떤 상황을 상상하든 상관 없습니다.(필요에 따라 연출이 보고 싶은 것이 있으면 상황을 얼마든지 추가해도 됩니다.) 각자 측석에서 생각해서 상대에게서 목적을 이뤄내기 위해 어떤 행위를 해가면서 상황극을 진행합니다.

둘 중 하나가 목적을 이뤄내면 상황극이 종료됩니다.(그 전에 연출이 끊어도 상관 없습니다.)

- 야-왜

캐스트들은 순발력, 상대배우와 호흡하기, 감정 쌓는 방법, 표출하는 방법, 서브텍스트 느끼면 됩니다.

연출들은 얼마나 의도를 전달하는지, 감정 표현 능력, 캐스트들의 습관, 집중력, 상태를 깨지 않는 정도, 오로지 자신의 의도와 상대배우에 집중할 수 있는

가를 보면 됩니다.

1. 두 명씩 짝을 짓는다.
2. “야” 역할과 “왜” 역할을 정한다.
3. “야”가 먼저 “야”라는 말 안에 의도를 담아 전달한다. 이때 의도는 감정일 수도, 다른 특정한 말일 수도 있다.
4. “왜”는 “야”의 의도와 속뜻을 파악하며 “왜”로 대꾸한다. “왜”는 “야”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상황을 이어가려 노력한다.
5. “야”, “왜” 역할을 바꿔 다시 진행한다.

-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 트레이닝의 효과는

술래 : 다양한 제시어를 생각해봄으로써 상상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참가자 : 제시어를 듣고 빠르게 반응함으로써 순발력과 다양한 표현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1. 술래가 “무궁화 꽃이 000합니다”라고 외칩니다.
2. 뒤에서 술래를 향해 다가가던 사람들은 술래가 다가갈 때 술래의 구호에 맞춰 해당되는 행동을 합니다.
3. 술래가 봤을 때, 술래가 제시한 행동과 사람들이 멈춘 동작이 일치하지 않으면 잡아잡니다.
4. 행동을 반복해서 가장 먼저 술래에게 가까이 가는 사람이 가장 처음 포로가 된 사람과 술래 사이의 연결고리를 끊습니다.
5. 고리가 끊기면 나머지 사람들을 도망치고 술래는 다음 술래를 잡으러 갑니다.
6. 반복합니다.

- 습관 토크

무대 위에서 평소 개인적인 습관들이 보이게 되면, 관객들이 몰입을 껴 수가 있습니다. 등장인물로서의 습관이면 몰라도 개인적 습관들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 자신의 습관들을 생각해 오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해 온 것을 같이 나눠보고, 같이 고쳐나가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 희노애락 토크

자신을 되돌아보고 감정들을 자장 잘 느꼈을 상황들을 생각해봅니다. 연기는 감정에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서 감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양

한 상황에서 나에게 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것
입니다. 꼭 많이 생각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나 자신을 표현
하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전술은 경험을 통해서 나옵니다. 다양한
상황에서 어떤 전술을 썼었는지도 잘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연습 첫째 날 잡아야 할 것]

아래의 글은 제가 캐스트들과 약속을 한 것입니다.

-연출과 캐스트의 관계

1. 연출은 연극의 구성을 정하고 만드는 사람입니다. 캐스트 여러분과 같이 함
께 만들어 가는 연극이지만 연출과의 합의 없이 배우 혼자서 연극에 대한 부
분을 수정하거나 추가하면 곤란합니다. 스텝적인 부분도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연기적인 요소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으면 연출에게 정중
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연극 준비를 하는 동안 100프로 여러분의 발전을 위하여 연출진이 연기
에 대해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 여러분들이 학기 중에 많은 시간을 연극에 할애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연출진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신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연습을 지향하지만(매우 중요!!, 우리 자유도 높
이기로 했잖아), 팀워크를 해치거나 분위기를 흐리거나 우리가 정한 캐칙에 어
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5. 연기에 대한 시도에 있어서는 최대한 다양한 시도를 해볼 것!!! 다양한 상
상, 표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제일 중요)

[캐칙]

1. 지각 금지
2. 눅지 말기
3. 대본 = 내 몸
4. 비난과 평가 금지
5. 숙제를 꼭 해오자!
6. 연습에 집중하기

7. 상태 최대한 깨지 말기
8. 최선을 다하기
9.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기
10. 자기를 사랑하기

어길 시 벌칙 : 캐치를 어길 시 주어지는 벌칙은 캐스트들의 의견을 받아 전체가 동의한 벌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주의!!! : 캐치를 어기는 것의 기준을 굉장히 명확히 해야합니다. 애매한 선으로 누구는 벌칙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논란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2) 2주차

[기초트레이닝]

1주차와 겹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역 오디션]

5월 2일 화요일에 진행하였습니다. 명륜과 울전은 같이 진행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진행한 후 보지 못한 오디션은 사전에 녹화하여 같이 보고 결정하였습니다. 오디션 진행 방식은 배우 자신들이 원하는 배역 1~2개 정도와 연출진들이 시키는 배역 2개정도를 연출진 앞에서 리딩하는 것이었습니다. 리딩할 때 드라이하게 리딩을 하면 안되고 최대한 느낌을 살려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디션이 끝나고 녹화해뒀던 동영상들 4명의 연출진들이 보면서 오디션 당일 저녁에 배역을 확정 지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했던 관계로 바로 다음날 5월 3일에 배역 오디션 결과를 공지하고 그 날부터 대본분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대본 분석]

대본 분석은 일단 모든 개념 설명과 어떤 방식으로 해야하는지부터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단 대본분석의 시작은 반복적인 대본 리딩입니다. 처음 리딩을 시작할 때에는 Dry 리딩으로 시작을 해야합니다. 억양, 감정이 고착되어서 바뀌기 어렵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캐릭터의 성격과 전사를 잡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비트'를 쪼개는 방법을 알려주

었습니다. ‘비트’는 목적에 따라 짜르게 시켰고, ‘비트’는 각 등장 인물에 따라 목적이 변화하는 지점이 다르면 다르게 쪼개질 수 있다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숙제로 내주었지만, 대부분의 캐스트들이 알려준 것과 다르게 비트를 쪼개와서 다시 잡아주느라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비트를 쪼개고 난 뒤에는 GOTE를 구체적으로 잡았습니다. GOTE를 잡고 서브텍스트를 잡음으로써 대본 분석을 마쳤습니다.

대본 분석은 캐스트들과 대면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잡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출과 같이 대본 분석을 함으로써 대본 분석에 대한 올바른 방향성을 계속해서 잡아가야 특히 워크샵 같은 공연에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에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완벽하게 대본 분석을 하지 못해서 장면 연습 중간 중간에도 계속해서 대본을 다시 분석하고, 고쳐나가야 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완벽하게 대본 분석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것이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틀을 제대로 잡고 장면연습으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3) 3주차 ~ 4주차

[장면 연습]

처음에는 대본을 보고 장면 연습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5월 10일이 돼서야 대본을 안 보고 장면 연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면 연습을 할 때 대본 숙지가 미숙할 경우, 목적, 전술을 생각해야할 때 계속 대사를 생각하게 되고, 상태가 깨지게 됩니다. 또한 대본을 들고 연습을 해야하기 때문에 동작에도 굉장히 큰 제약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에 대본 숙지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시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꽤 다수가 대본 숙지가 미숙했기 때문에 장면 연습 진도에 큰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팀별로 다른 장면이 있는 옴니버스 극이었기 때문에 정규 연습 시간인 6~10시가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팀이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다른 팀은 할 수 있는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캐스트들과 연출들의 시간을 조정하여, 정규 연습 외의 시간에 각 장면 팀별로 보충연습을 하였습니다.

장면 연습을 할 시에는 일단 비트별로 연습을 진행합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장면을 만들 때에 동선까지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장면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동선은 미리 짜놓은 동선을 이용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수정은 배우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의 촉박함과 다수의 문제들로 인해서 마지막 주까지 장면을 수정해야했습니다. 장면의 세부 구성이 늦게 완성될수록 캐스트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수 있기에 신중해야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간/날짜	5. 15(월)	5. 16(화)	5.17(수)	5.18(목)	5.19(금)	5.20(토)	5.21(일)
11:00		김결, 박규현	휴무	김결, 박규현(~12:50)		00:00~06:00 철야	휴무
12:00							
13:00							
14:00		김영후, 류가연					
15:00							
16:00	김승현		휴무	김영후, 류가연(~12:50)			휴무
17:00	이유진(4:30~)	김승현, 이유진					
18:00							
19:00	단체연습	단체연습		단체연습	시연회		
20:00							
21:00							
시간/날짜	5. 22(월)	5. 23(화)	5.24(수)	5.25(목)	5.26(금)	5.27(토)	5.28(일)
11:00		김결, 박규현	휴무	김결, 박규현(~12:50)			공연(상세 시간 추후 공지)
12:00							
13:00							
14:00		김영후, 류가연					
15:00							
16:00	김승현, 이유진		휴무		최종리허설(상세 시간 추후 공지)	공연(상세 시간 추후 공지)	공연(상세 시간 추후 공지)
17:00		김승현, 이유진					
18:00							
19:00	단체연습	단체연습		단체연습(합동, 사당 플렉스 연습실)			
20:00							
21:00							

[시연회 및 철야]

-시연회 : 시연회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시연회는 공연 전에 하는 간이 공연인만큼 최대한 공연과 비슷하게 진행하여야합니다. 캐스트들의 의상과 공연 음향, 그리고 어느 정도의 조명을 사용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텝들도 최대한 많이 와서 진행을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연회에서 아쉬웠던 부분은 제대로 된 런을 돌려본 적이 이전에 없기 때문에 대도구 이동, 무대 위치, 동선 파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울전-명륜이 통합하여 연습을 진행한 적이 없어서 런-쓰루를 해본 경험이 없다는게 울전-명륜 통합 워크샵의 큰 흠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스케줄 조정 이슈와 건강상의 이유로 한 장면을 진행하지 못한게 아쉽지 않았

나 싶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는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지만, 스케줄 조정은 사전에 미리미리 했으면 충분히 조절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캐스트들의 스케줄을 더욱 신경쓰고 미리미리 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스텝분들은 전체적인 장면을 볼 수 있는 첫 기회이기도 하고, 조명과 음향은 큐시트가 잘 맞는지 평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철야 : 5월 19일 자정부터 5월 20일 새벽 6시까지 진행했습니다. 이번 워크샵에서의 철야의 의의는 학기 중에 부족했던 연습을 보완하는 것과 “최악의 컨디션에서 배우가 얼마나 역량을 끌어낼 수 있는가”입니다. 이번 철야는 아직 완벽하게 잡혀있는 장면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장면별로 수정을 거듭하였습니다. 원래는 런-쓰루를 여러 번 하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는 것이 좋지만, 완성도가 떨어진채로 런-쓰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연기가 굳어서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장면 완성도에 따라 런-쓰루를 할지 아니면 장면별로 수정을 불지는 진행 상황에 따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5주차

[대도구 연습]

마지막 주가 되어서야 대도구 연습을 시작하였습니다. 대도구 연습은 실제로 배우들이 공연에서 사용하는 대도구들을 활용하여 장면 연습을 해보는 것입니다. 암전 때 대도구 이동이 있기 때문에, 캐스트들에게 이를 잘 숙지시켜줘서 혼란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배우들은 연기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에 대도구 이동을 헛갈리게 하여 혼란이 최대한 적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도구 연습을 하며 커튼콜까지 맞춰봄으로써 장면을 완성시켰습니다.

[최종 리허설]

최종 리허설은 극장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극장에서 조명과 음향, 무대가 갖춰진 상태에서 하는 리허설이었습니다. 최종 리허설을 하기 전에 스텝 부분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일단, 무대 용달을 부를 때 동방에서 재료와 벽

을 같이 담아야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결국에는 직접 동방에서 극장까지 들고 옮겨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설치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챙겨올 것을 다 챙겼는지 확실하게 체크를 하고 용달을 출발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학기 중이니까, 스텝 분들이 6시 이후부터 되는데 무대 설치에 주어진 시간이 하루 밖에 되지 않아서 상당히 촉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소극장 자체에서도 철야가 불가하다고 하여 10시에는 모든 설치를 중단하고 극장을 나와야했습니다.(이제 이 극장은 이용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대 설치가 늦어져서 덩달아 조명 설치도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따라서 최종 리허설 때 조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생각은 만약 공연이 학기 중이고, 스텝들의 수업이 다 늦게 끝난다면, 대관일을 더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공연은 2일 공연 4일 대관이었습니다.)

최종 리허설에서는 배우들의 사소한 부분들을 잡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발성, 몸 열기, 동선, 대 도구 이동, 상태에 집중해서 디렉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은 디렉팅은 배우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배우들이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 공연 당일

공연 첫째 날은 9시까지 극장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9시부터 연출은 메이크업 수정을 봐주고, 추가적으로 조명, 무대, 음향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지, 관찰은지 확인을 합니다. 공연 당일은 배우들에게 많은 것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단지, 큰 격려와 지금까지 잘해왔으니 오늘도 잘할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캐스트들이 늘어지거나 다운되지 않도록 에너지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연 시작 전에는 리허설을 한 번 더 해서 확실하게 동선과 등장인물로서의 상태를 유지하게끔 도와주었습니다.

공연 둘째 날은 10시까지 극장으로 모이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날과 달리, 둘째 날에는 뒤깍이만 진행하고 리허설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4. 마무리 및 소감

비교적 5주라는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5주였습니다. 캐스트들에게 더 다양한 트레이닝을 알려주고 싶었고, 더 연기와 가까워지게 해주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좋은 퀄리티의 공연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워크샵의 목적은 연극에 흥미를 가지게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배우들과 공연진 모두가 값진 경험 하나씩을 얻어가는 것이 좋은 퀄리티의 무대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성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연출을 맡게 되시는 모든 분들은 공연의 퀄리티를 2순위로 두시고 값비싼 경험을 갖게 하는 것을 1순위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부족한 인수인계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54회 신입생 워크샵 공연진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사히 공연 올린 것만으로 저는 행복합니다.